

광주은행 창립 57주년



광주은행은 20일 본점에서 창립 57주년을 기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고객과 은행 발전에 공헌한 고객과 직원에게 감사패와 포상을 수여했다.



특별 감사패를 수상한 박지원 국회의원 (왼쪽)과 고재유 전 광주시장.

“생산적 금융 확대·동반 성장…총자산 100조시대 연다”



미래 100년 위한 4대 핵심전략 발표 중점산업 지원·수익 기반 강화 주력

광주은행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한 지역 상생, 수익 기반 강화, 디지털 혁신, 조직 혁신성 강화를 통해 총자산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광주은행은 20일 본점에서 창립 57주년 기념식을 갖고, 미래 100년을 위한 4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광주은행은 미래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선다. AI, 미래차, 첨단산업 등 중점 산업의 지원을 강화한

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금융서비스도 확대해 지역경제와 은행의 지속 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은행은 미래 수익 기반 강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매진한다.

기업·공공금융 중심의 종합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금융 확대와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의 전기를 마련한 베트남 증권사 'JBSV'의 성과처럼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도 추진해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와 AI 디지털 뱅크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위한 AI·데이터 전문인력을 육성할 방침이다.

광주은행은 창조적 파괴 기반의 조직 혁신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계적 제도·관행을 탈피하고 도전과 실행 중심의 조직문화로 전환한다. 대형시중은행과 동일한 방식이 아닌 지역 기반의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운영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생각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혁신을 주도하는 생동감 있는 광주은행을 만들겠다”며 “급변하는 금융경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장과 미래 성장 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총자산 100조원을 향한 초일류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재유 전 광주시장 등을 비롯해 고객, 직원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와 포상

을 받았다.

고병일 은행장은 “1968년 창립 이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고객, 지역민, 그리고 1700여 임직원의 헌신 덕분”이라며 “광주은행은 언제나 지역의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경제는 청년층 유출, 고령화, 산업구조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변화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변화를 직접 이끄는 은행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은행은 올해 지역 신용보증기관에 71억원을 특별출연하고, 포용금융센터를 통해 고금리 대출 이용 고객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서민금융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다. 토스뱅크와 협업해 금융권 최초 공동대출 상품 ‘함께대출’을 출시해 디지털 기반 금융 혁신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에서 지방은행 부문 8년 연속 1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지역재투자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포스코홀딩스, 창업열기 확산 ‘광양스타트업 콘서트’

유명 방송인 타일러 라쉬 초청 강연

포스코홀딩스는 지역사회 벤처 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2025년 제3회 광양스타트업 콘서트를 최근 백운아트홀에서 400여명의 청년과 예비창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광양스타트업 콘서트는 포스코홀딩스가 전남도, 광양시와 함께 전남 벤처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체인지업(CHANGeUP)’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민들과 예비 창업자, 청년들에게 창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도전과 혁신정신을 확산해 지역생태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스타트업 콘서트의 연사는 방송인 타일러 라쉬로 9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언어의 천재라는 별명을 듣고 있는 박학다식한 명사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국제학과 출신인 타일러 라쉬는 JTBC예능프로그램 ‘그림’ ‘비정상회담’에서 ‘공식 브레인’ 캐릭터로 활약하며 얼굴을 알렸고 방송은 물론 인문학, 사회학, 경영과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연과 출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번 강연에서 “기업의 글로벌화”라는 주제로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보는 창업 이야기와 성공 스토리, 격화되는 경쟁시대에 CEO들이 견지해야



포스코홀딩스는 지역사회 벤처 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2025년 제3회 광양스타트업 콘서트를 최근 백운아트홀에서 400여명의 청년과 예비창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할 리더십 등을 사실적이면서도 흥미진진하게 이어 나갔다. 특히 내수 시장을 뛰어넘어 글로벌화 사업 방식을 통해 성공한 스타트업 사례를 소개하고 창업의 전략 등에 관해 자유로운 질의와 응답을 벌여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어냈다.

타일러 라쉬는 “스타트업은 성장통은 항상 있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나 조직구성원들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됐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두려움보다 실행을 선택해 작은 시도라도 바로 실행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포스코는 지난 7월과 8월에도 ‘두끼 떡볶이’의 김관훈 대표, 개그맨 출신 요식업 창업가 고명환 대표를 각각 초청해 콘서트를 열고 창업가의 도전 경험을 공유했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오는 26일 ‘GROUND광양’을 개관해 안정적인 창업지원 인프라와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갖춘 창업 사업화 공간을 갖춘 계획이다. 또 전남도, 광양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 지역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벤처자원을 제공하고 이차전지·수소 등 지역특화 신산업 혁신에 앞장서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한전, UAE원자력공사와 글로벌 시장 진출 협력

한-UAE 정상회담 계기…미래 신사업 분야 파트너십 강화

한국전력이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UAE간 원전 미래 신산업분야에 대한 협력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

한전은 지난 18일 UAE 대통령궁에서 UAE원자력공사(ENEC)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전은 ENEC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평가, 원전 분야 AI 활용 등 차세대 원전기술에 대한 정보교류, 인력양성, 공동연구 등을 통해 미래 신사업에 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전은 이번 MOU가 원전 분야 미래 신사업에 대한 협력을 통해 양사의 우호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양국 원전 산업계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바라카원전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양국의 원전 수출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한전 김동철 사장은 지난 19일 모하메드 알 하마디(H.E. Mohamed Al Hammadi) ENEC 사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세계 원전 시장에 공동

으로 진출하기 위한 세부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면담에서 김동철 사장은 “글로벌 파트너십 모색에 양사가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제3국 공동진출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또 “그동안 양사가 협력과 신뢰 기반 위에 쌓아 올린 성공적인 사업 성과는 미래 협력의 큰 모멘텀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양사가 제3국 원전사업에 공동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모하메드 알 하마디 ENEC 사장은 “세계 원자력 분야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함께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양사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큰 상호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한전이 2009년 수주한 국내 최초 원전 수출사업인 UAE 원전 건설사업은 UAE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전(APR1400) 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4호기 상업운전 개시를 통해 4개 호기 모두 성공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 효율과 안전성으로 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대형원전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